

억압적 성격 성향자의 적응적/ 비적응적 특성에 관한 비교 연구

이 윤 아*

이 기 학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불쾌한 자극에 대한 생리적 반응성이 높은 반면에 부정적인 정서 경험을 더 적게 보고한다고 정의된 억압적 성격 성향자의 적응적, 비적응적 성격 특성을 알아보는 데 있다. 가설 1에서는 적응적 특성과 관련하여, 억압 집단이 개인차 성격 변인들(자존감, 낙천성, 강인성, 내적통제감, 외향성)에서 비억압 집단에 비해 더 높은 점수를 나타나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그 결과 다섯가지 개인의 적응적 성격특성 변인들에서 집단간 차이가 유의미하였고 억압 집단이 더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가설 2에서는 비적응적 특성과 관련하여 우선, 억압 집단이 비억압 집단보다 신체화를 더 많이 겪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아울러 억압 집단과 비억압 집단을 나누어 각각의 집단에서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감정이 신체화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그 결과 신체화에서 집단간 차이는 유의미하였으나 가설과 반대로 억압 집단은 비억압 집단보다 더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양가감정이 신체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본 결과는 가설대로 신체화에 대한 양가감정의 설명력이 억압 집단에서만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가 시사하는 바와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 연구에 대한 제언이 언급되었다.

주요어 : 억압적 성격 성향, 억압 집단, 비억압 집단, 적응적 특성, 비적응적 특성

이윤아는 한국가족상담센터에서 일하고 있고, 이기학은 연세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조교수로 근무하고 있음. *교신저자 : 이 윤 아, (137-863)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64-53 한생빌딩 301, 한국가족상담센터,

FAX : 02-525-0618 E-mail : youi428@yonsei.ac.kr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 욕구, 환상 등 소위 정신적인 현상은 우리의 신체적 현상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예컨대, 불안감은 가슴이 두근거리고 신체가 긴장되고 호흡이 편안하지 않으며, 슬픔은 목이 메고 눈시울이 축축해지며 가슴이 쩍해지는 신체현상을 동반한다. 그리고 분노감정은 신체의 흥분과 거 호흡을 수반하며, 기쁨은 가슴이 부풀어 오르며 미소가 지어지면서 신체의 쾌감을 동반한다. 이밖의 공포, 괴로움, 불편함, 질투심, 사랑의 감정, 그리움, 식욕이나 성욕 또한 신체현상과 무관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느 한 쪽의 출현이나 억압은 반드시 다른 쪽에도 그에 대응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예컨대, 분노감정의 자각은 신체의 흥분과 함께 체험되는 반면에 분노감정의 억압은 신체 긴장과 함께 나타난다(Perls, 1969).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흔히, 감정이나 욕구를 자신의 신체 상태와 다르게 지각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는 주변에서 부정적인 정서나 욕구를 억압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그들의 감정을 물어보면 덤덤하다, 아무렇지도 않다고 말하지만 눈가엔 눈물이 글썽이고 얼굴은 불그락하며 입술을 금방이라도 울 것처럼 빼죽거리는 경우 등을 볼 수 있다.

일상적 의미로서의 억압은 이렇듯 우리 주변에서 쉽게 일어나는, 낯선 개념이 아니지만 1930년 이후 시작된 억압에 대한 많은 실험 연구들에서는 억압의 존재와 이면의 기제를 밝히는데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고(Dollard & Miller, 1950; Holmes, 1974; Erdelyi, 1985), 무엇보다도 억압 개념 자체를 조작화하는 것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억압의 개념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시행착오를 겪는 가운데 Weinberger, Schwartz 및 Davidson(1979)은 억압자란 불쾌한 정서에 대해 억압적인 대처방식을 가진 사람들이며, 불안을 거의 느끼지 않는다고 보고하지만, 또한 매우 방어적인 사람들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조작적 정의는 이후에 억압적 성격 성향자들의 연구 결과에서 억압 집단이 불쾌한 자극에 대한 생리적 반응성은 높은 반면에, 부정적인 정서 경험은 더 적게 보고한다는 공통적이고 일관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Newton & Contrada, 1992; Gross & Levenson, 1997; Myers & Brewin, 1995).

초기에 억압적 성격에 초점을 둔 대부분의 연구들은 억압-민감화 척도(Repression-Sensitization Scale : Byrne, 1961; Byrne, Barry & Nelson, 1963)를 이용하였다. Byrne의 억압-민감화 척도는 지각적 방어 연구로부터 발전되었으며, 여기에서 억압자는 불안 유발 자극에 대한 인식 역이 높은 사람들이라고 정의되었다. 이 척도의 가정은, 불안을 보고하지 않는 사람들은 억압적 인지 양식, 즉 위협의 존재나 잠재력을 최소화시키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지나친 심리적 고통을 보고하는 사람들은 민감한 인지 양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억압의 측정도구로서 이 척도의 타당성에 대한 문제들이 제기되면서 이 척도와 다른 불안 측정도구들과의 정적인 상관성이 매우 높음을 보고하였다(Tudor & Holmes, 1973; Weinberger et al., 1979). 이러한 높은 상관성은 억압과 저불안이 혼입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불만이 낮은 사람들과 불안 경험을 억압하여 결과적으로 낮은 수준의 불안을 보고하는 사람들을 구분해 내지 못한다는 문제를 나타내었다.

그런데, 1960년대 후반부터 몇몇 연구들에서 사회적 선회도 척도(Marlowe-Crowne Social

Desirability Scale, MCSDS; Crowne & Marlowe, 1964) 를 사용하여 낮은 수준의 심리적 고통을 보고하면서도 방어적인 사람들과 비방어적인 사람들을 구분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Holroyd(1972)는 Byrne의 척도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뿐 아니라, Marlow-Crowne 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얻는 사람들만이 성적인 그림과 관련된 자극에 대한 인식 역이 높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에서 “비방어적인 억압자”라는 개념상 자기모순적인 혼돈스러운 명칭이 나오기도 하였다. 선회도 척도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질문지에 응답하는 경향성을 측정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Crowne과 Marlowe(1964)는 이 척도가 반응 편파보다는 어떤 실질적인 개인차 차원인 방어성을 매우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다고 보았다. Crowne과 Marlowe(1964)의 연구에 의하면 이 척도 상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사람들은 인지 부조화 조작에 더 취약하고, 부정적 정서인 분노나 적개심이 납득될 만하거나 용서될 수 있을 때에도 그러한 감정을 느낀다는 보고를 잘 하지 못하며, 다른 사람들의 거부 또는 배척을 상당히 두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사람들이 자기를 해악이나 거부로부터 보호하려고 시도한다는 점에서 보아 그들의 행동 패턴에 방어적이라는 용어를 붙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자아 위협적인 사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불안에 대처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방어라고 하고 (Houston, 1971; Kahn & Schill, 1971) 이에 해당하는 각각의 전략을 방어기제라고 볼 때, 방어기제와 억압과 관련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해석들은 방어기제유형 중 하나로써 억압을 언급하기보다는, Freud가 초기에 방어개념을 억압으로 대체하여 사용한 것 같이 억압과 방어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즉, 억압을 심리적 고통이나 불쾌함을 차단시키거나 제거하는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대처양식으로서의 방어성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Weinberger 등(1979)은 억압자를 방어성 측정치가 높고, 특질 불안의 측정치가 낮은 사람들로 재정의하고, 불안과 방어성 점수의 조합을 토대로 다음의 4개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 억압(고방어-저불안), 저불안(저방어-저불안), 방어적 고불안(고방어-고불안), 고불안(저방어-고불안). 여기서 의미하는 불안은 상황적이고 순간적으로 느끼는 불안이기보다는 전반적인 개인 특성적이고 성격적인 불안을 의미한다.

이상의 억압 개념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억압 연구는 그동안 억압의 존재와 이면의 기제를 밝히고 개념 자체를 조작화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따라서 Freud 이후 오랜 시간동안 억압 성격이 널리 받아들여지기는 했지만 실제적으로 이들의 성격 특성에 관한 연구가 부족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억압적 성격 성향과 다른 성격변인들과의 관련성을 검증해 보고자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억압적 성격 성향에 적응적인 측면과 비적응적인 측면이 공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정하였다.

이론적 측면에서 정신분석학의 Freud(1957)는 ‘방어’란 내적갈등이 의식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아가 사용하는 메카니즘으로 보았다. 여기서 방어하는 주체와 방어되는 내용을 서로 다른 실체로 보았는데, 방어하는 주체는 자아이지만 방어되는 내용은 이드충동이라고 하였다. 또한 자아방어에 대해서 갈등을 일으키는 충동들 간의 타협을 통해 혹은 좌절스러운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내적 갈등과 불안을 감소시키는 정신적 조작이라고 하였

다. Siegel(1969)은 개인이 원하지 않은 충동방출을 억제하고 변형, 조정하는데 기여하는 사고, 정서, 행동을 방어기제라 했으며 Bond(1983)는 방어란 내적인 욕구와 의식적인 욕구를 조종하려는 무의식적인 정신 내적 과정 뿐만 아니라 그러한 목적을 지닌 의식적, 무의식적 행동까지도 포함한다고 정의하였다(조성호, 1999 재인용). 그러나 이때까지는 방어의 사용이 적응적이며 병리적인지에 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었다. 그 이후 조성호(1999)에 의하면, Vailant(1986)가 방어를 내적 추동과 외부적인 요구를 조정하도록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고안된 행동들로 정의하면서, 자아방어기제는 크게 성숙한(적응적) 방어유형과 미성숙한(비적응적) 방어유형으로 나누어 질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구분의 기준은 충동이나 욕구, 불안 등에 직면했을 경우, 이 때의 처리방식이 심리적인 성숙의 정도와 얼마나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나누어진 것이라고 하였다. 성숙한-더 적응적인 방어-방어유형(예: 이타주의, 승화, 유머, 예견)은 충동이나 욕구, 불안, 부정적 감정, 좌절, 또는 갈등을 경험했을 때 정서적인 충동들을 재조정하고 현실을 약화시키며 더 적응적이고 건전한 방식으로 표현함으로써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 미성숙한-비적응적 방어-방어유형(예: 행동화, 회피, 퇴행, 신체화)은 현실을 훨씬 더 왜곡하는 경향이 있으며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거나 부적절하게 평가하는 방식을 갖고 정서적인 표현이나 감사를 표현하는데 있어서 심각한 제한을 가진다. 이후 연구에서 Kaplan과 Sedock(1989)는 방어기제를 성숙도에 따라서 자기애적 방어기제, 미성숙한 방어기제, 신경증적 방어기제, 성숙한 방어기제의 4단계로 분류하였다.

현재 국내에서는 국외연구를 통해 밝혀진 방어기제의 단계를 국내 상황에 맞춘 이화방어기제와 한국판 방어유형 질문지(Korea-Defense Style Questionnaire: K-DSQ)가 방어성 연구에 주요 도구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까지 방어성에 관한 연구는 특정 방어기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왔으며, 적응적인 방어유형과 비적응적인 방어유형을 나누어 다른 심리적으로 요인들과의 관계를 탐색하는 것에 국한되어 왔다. 그러나 전체 방어성의 측면에서 볼 때 적응적 방어유형과 비적응적 방어유형이 둘 다 높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전반적으로 방어성이 높은 사람들이 동시에 적응적이면서 비적응적인 방어유형을 나타낼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볼 수 있다. 실제로 Kaplan과 Sedock은 특정 방어유형(예: 통제, 전치, 해리, 이지화, 고립, 억압¹⁾, 반동형성 등)이 성숙한(적응적) 방어유형과 미성숙한(비적응적) 방어유형 그 둘 간에 모두 존재하며, 개인들의 방어의 적응적인 강도는 발달에 의해 조정되어진다고 하였다. 실제 연구를 통해 밝혀진 억압성격의 적응적/ 비적응적 특성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높은 방어성과 낮은 불안을 나타내는 억압 집단의 낮은 부정적 정서 경험은 개인의 주관적인 심리적 안정의 관점에서 적응적인 측면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억압적 성격 성향자의 정서적 특성과 정서조절방략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를 보면(옥수정, 2001), 억압 집단은 정서인식에 있어서 건설적인 사고와 행동을 촉진시키며 자신의 부정적

1) 본 연구에서 말하는 억압적 성격 성향자의 “억압”은 높은 방어성과 낮은 불안수준에 따라 구분된 억압적 성격을 의미하고, 방어기제 중 “억압”은 신경증적 방어기제의 하나로써의 언급된 것이므로 의미가 같지 않음을 밝힌다.

인 정서에 좀더 적응적인 조절 양식을 택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또한 정서조절의 측면에서 억압집단은 능동적 조절방략과 재해석 조절방략을 더 많이 사용함으로써 상황의 밝은 면과 긍정적인 결과에 대한 인지적 처리에 집중하여 개인의 적응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조절 방략과 관련하여 윤석빈(1999)은 예비연구를 통해 정서조절 양식을 능동적 양식, 회피-분산적 양식, 지지추구적 양식의 세 범주로 구분하였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정서조절 양식의 선택에서의 개인차에 관심을 가지고, 사람마다 다르게 선택하는 정서조절 양식과 관련된다고 예상되는 여러 변인들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능동적 양식은 나머지 두 가지 정서조절양식과 달리, 다음과 같은 개인차 변인에서 서로 높은 관련을 맺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 자존감, 내적 통제감, 외향성, 긍정적 정서성, 부정적 기분 통제, 낙관성, 강인성. 이러한 변인들과 관련된 능동적 정서조절 양식은 개인의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능동적 정서조절 양식과 정적인 상관을 나타낸 개인차 변인들 또한 적응적인 성격 특성으로 간주하였다. 이러한 적응적인 특성은 성숙한-더 적응적인 방어-방어유형이 충동이나 욕구, 불안, 부정적 감정, 좌절, 또는 갈등을 경험했을 때 정서적인 충동들을 재조정하고 현실을 약화시키며 더 적응적이고 건전한 방식으로 표현함으로써 심리적 안녕감을 준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개인의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차 변인들에서 억압 집단의 적응적인 성격 특성을 예측해 볼 수 있는 한편, 동시에 신체적 측면에서 억압 집단의 비적응적인 특성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이론적인 측면에서 Reich 방어개념을 신체차원에서 새롭게 정의하였다. 그는 방어는 항상 신체의 긴장 형태로 나타난다고 했으며 이러한 방어기제가 굳어진 것이 개체의 성격이라고 했다. 따라서 성격은 단순히 정신적인 현상이 아니라 신체자세로도 가지화되는데, 그는 이를 '성격무장(Character Panzer)'라고 불렀다. 이때 성격무장이란 만성적 긴장상태를 의미한다(Perls, 1976). 그는 이러한 무장이 환자의 불유쾌한 기억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유지되는데, 이것이 환자에게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개체의 에너지를 차단시켜 성장에 방해가 되므로 신체작업을 통해 성격무장을 해제해야 한다고 했다. 왜냐하면, 그에게 있어서 이러한 방어는 진실된 자기를 덮고 있는 껍질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는 이처럼 방어를 개체의 성장에 장애가 되는 비적응적인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신체의 긴장상태는 신체화라는 비적응적 측면의 방어유형에서도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다.

실제 연구에서 억압 성격 성향자들은 부적 정서 경험이 낮을 뿐더러 부적 정서에 대한 표현도 낮은 경향성을 나타내었다(옥수정, 2001). 한정원(1997)은 정서 경험과 관련하여 깊은 정서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보다 높은 정서 표현을 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고, 또한 정서 표현이 높은 사람은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신체화의 원인이 부정적 정서 그 자체보다는 정서표현의 억압(Bleuter., et al, 1986)이나 혹은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지 못하는 감정표현불능증에서 나타난다는 선행연구들(Nemiah & Sifneos, 1970; Talor, Bagby, & Parker, 1991; Talor, 1984)이 있다. 더불어 정서체험과 정서표현

이 주관적 안녕감과 신체적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Pennebaker & Kiecolt-Glasser, 1988; 이주일, 황석현, 한정원, 민경환, 1997)은 억압적 성격 성향자의 낮은 부적 정서경험과 표현 경향성이 신체적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측을 해볼 수 있다.

그런데 King과 Emmons(1990)는 비표현의 심리적 목적 갈등과 심리신체적 질병과의 관련을 연구한 결과, 정서의 표현여부보다 정서를 표현하느냐 억압하느냐 사이의 양면성이 심리적 고통과 신체적 증후군과 높은 상관을 나타낸다는 것을 밝혀냈다. 또한 Pennebaker, Hughes와 O'Heeron(1987)은 정서표현 자체만으로는 병원이 되기(pathogenic) 어렵다고 보고, 연구한 결과 정신적 충격이 심한 생활 사건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고자 하는 욕구를 억누르는 사람이 이후의 건강문제를 나타낸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의 초점은 병의 원인이 되는 중요한 요인이 정서표현에 대한 개인의 욕구라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욕구가 사회적 기준 또는 개인의 다른 목적들과 갈등한다면 개인은 정서를 표현하든 표현하지 않든 심리신체적 반응의 유해한 효과를 경험할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실제 건강체크에서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Myers & Vetere, 1997) 더 많은 신체화 증상을 나타낼 것으로 예측되는 억압집단은 비억압 집단에 비해, 정서를 표현하든 표현하지 않든 -억압집단의 낮은 정서표현성이 밝혀졌을지라도- 내적 정서표현욕구에 대한 양면성을 가진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해 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들을 통해, 억압적 성격의 낮은 부적 정서경험 때문에 개인의 적응에 유리한 점들이 밝혀지고 있다. 하지만 억압적 성격 성향자들이 부적 정서 경험을 회피하는 것이 역기능적인 측면을 수반하고 있지는 않은지, 비적응적인 측면에 대한 실질적인 접근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본 연구는 억압집단의 신체적 증후군을 설명하는 요인을 탐색해 보는데에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Weinberger 등(1979)의 분류개념에 근거하여 불안-방어성으로 억압 집단과 비억압 집단(방어적 고불안, 저불안, 고불안의 세 집단을 하나로 묶음)을 나누어 억압 집단이 비억압 집단과 비교하여 적응적/ 비적응적 개인차 성격 특성들에서 어떠한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억압 집단의 적응적 특성과 관련하여, 억압 집단이 보이는 능동적 정서조절 방략과 정적 상관을 보인 개인차 변인들(자존감, 낙천성, 강인성, 내적통제감, 외향성)에서 억압 집단과 비억압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둘째, 억압 집단의 비적응적 특성과 관련하여, 억압 집단이 신체화에 있어서 비억압 집단과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억압 집단과 비억압 집단을 나누어 각각의 집단에서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감정이 신체화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봄으로써 억압 집단의 비적응적인 측면에 접근해 보고자 한다. 위의 두 가지 연구 목적을 토대로 구성된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억압 집단은 비억압 집단보다 적응적인 개인 성격특성(자존감, 낙천성, 강인성, 내적 통제감, 외향성)에서 더 높은 경향성을 나타낼 것이다.

가설 2-1. 억압 집단은 비억압 집단과 비교하여 볼 때, 비적응적인 개인 성격특성(신체화)에서 더 높은 경향성을 나타낼 것이다.

가설 2-2. 억압 집단은 정서표현에 대한 양면성이 신체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3. 비억압 집단은 정서표현에 대한 양면성이 신체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서울 시내 Y 대학교에서 심리학 관련 교양과목을 수강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239부가 회수되었으며, 이 중 불성실하게 임한 10명의 학생 자료를 분석에서 제외시켜 총 229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성별분포는 남학생이 119명(52.4%), 여학생이 106명(46.7%)였고, 학년분포는 1학년이 107명(47.1%), 2학년이 68명(30.0%), 3학년이 29명(12.8%), 4학년이 21명(9.3%)였다. 연령은 18세부터 29세까지였으며, 평균 연령은 20.98세였다.

측정도구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 억압집단과 비억압집단을 분류하기 위한 측정도구이다.

외현 불안 척도 (Manifest Anxiety Scale : MAS). Bendig(1956)가 20문항으로 구성된 불안 척도이며, 각 문항은 예 혹은 아니오에 응답하게 되어있고 점수 범위는 0점에서 20점까지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용승(2000)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용승 연구에서 이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84 이었고, 2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6 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84였다.

사회적 선회도 척도 (Marlowe-Crowne Social Desirability Scale : MCSDS). Crowne 과 Marlowe(1964)가 개발한 척도로서 3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억압 연구에서는 방어성을 측정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각 문항은 예 혹은 아니오에 응답하게 되어있고 점수범위는 0점에서 33점까지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번안판은 이용승(2000)의 연구에서 사용된 것이다. 이용승 연구에서 이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76 이었고, 2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76 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74였다.

둘째, 개인적 특성 중 적응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측정도구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존감 척도. Rosenberg(1965)의 전반적 자존감 척도(Global Self-esteem Scale)를 윤석빈(1999)의 연구에서 번역된 것을 사용된 것으로 총 10문항으로 되어있고 각 문항에 대하여 5 점 척도로 평정되며, 윤석빈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72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87로 나타났다.

낙관주의 척도. Scheier, Carver와 Weintraub(1989)가 개발한 낙관주의 척도(Life Orientation Test, LOT)를 윤석빈(1999)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5점 척도 상에서 반응하도록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 이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78로 나타났다.

자아 강인성 척도. 윤석빈(1999)의 연구에서 사용한 자아 강인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0개의 5점척도(“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로 이루어진 강인성 척도는 몰입, 통제, 도전 3개의 하위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 이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72였다.

내적 통제감 척도. Rotter(1990)의 내-외 통제성 척도를 수정, 번안하여 윤석빈(1999)이 사용한 척도를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한다. 본 척도는 총 15문항으로 각 문항별로 2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연구 참여자들은 자기의 의견과 가깝다고 생각하는 문장에 체크하도록 되어있다. Spearman-Brown 신뢰도는 .84였고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80이었다.

외향성 척도. EPQ(Eysenck Personality Questionnaire, Eysenck, 1977)의 한국어판 가운데 외향성 경향을 측정하는 소척도의 20문항을 이용하고자 한다. 윤석빈(1999)의 연구에서 소척도 신뢰도는 .80으로 나타났고, 연구 참여자들은 각 문항에 대하여 예 혹은 아니오로 반응하도록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 이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86으로 나타났다.

셋째, 마지막으로 비적응적 특성을 탐색하기 위한 측정도구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감정 질문지(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Questionnaire: AEQ). King과 Emmons(1990)가 제작한 정서표현의 양가감정 질문지를 하정(1997)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고자 한다. 본 척도의 하위요인은 긍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양면성 10문항과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양면성 18문항, 총 28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정(1997)의 연구에 따르면 각 하위요인의 내적 일치도 계수가 각각 .88, .85였으며 전체 척도는 .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2의 내적합치도를 얻었다. 본 연구에서는 양가감정의 하위요인을 나누지 않고 분석하였는데, 그 이유는 긍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양면성 문항이 기쁨, 사랑, 즐거움 등의 긍정적인 정서표현에 대한 어려움이라기보다는 “나는 감정표현을 좀 더 자연스럽게 하고 싶지만 잘 안된다”, “솔직한 감정표현이 어려울 때가 있다”, “상대방에게 내 마음을 전하고 싶지만 자꾸 머뭇거리게 된다” 등 전반적으로 솔직한 자신의 감정에 대해 표현하기 어려워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신체화 진단(Screening for somatoform symptoms : SOMS). Rief와 Hiller가 1998년에 개발한 신체화 진단 척도로서 이승미(2003)가 번안한 것을 수정,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42개의 증상을 자가 보고하는 형식으로, DSM-IV의 somatization disorder의 33개의 증상과 ICD-10의 somatization disorder, somatoform autonomic dysfunction symptom의 증상들을 포함하고 있다. 피험자들은 이 증상들을 지난 2년동안 경험했는지를 질문 받고, 질문에 나타난 증상 중에 예, 혹은 아니오로 응답하게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체화에 대한 증상 위주로 예라고 응답한 수가 많을수록 신체화가 높은 것으로 보았다. Rief의 연구에

서 본 척도는 Cronbach' s alpha .85로 좋은 내적 일치도를 보였으며 본 연구에서도 .85의 내적합치도를 얻었다.

절차

불안-방어성에 따른 집단 분류는 불안을 측정하는 외현불안척도(MAS)와 방어성을 측정하는 사회적 선회도(MCSDS) 척도를 가지고, 전체 질문지 응답자를 억압 집단과 비억압 집단(저불안, 방어적 고불안, 고불안)으로 나누고자 평균치를 사용하였다. 외현불안척도와 사회적 선회도 척도의 평균점수를 내어서 평균점 이하, 이상으로 억압 (고방어-저불안), 저불안 (저방어-저불안), 방어적 고불안 (고방어-고불안), 고불안 (저방어-고불안)으로 나눈 후에, 억압 집단과 비억압 집단(저불안, 방어적 고불안, 고불안)의 세 집단을 하나로 묶음)과의 차이를 보고자 하였다.

첫째로, 억압적 성격 성향자의 적응적 특성을 탐색하기 위해 여러 개인차 변인들(자존감, 낙천성, 강인성, 내적통제감, 외향성)에서 억압집단과 비억압 집단간 차이가 있는지 SPSS 11.0 for Window를 이용하여 독립표본 t검증(Independent Sample Test)을 실시하였다. 그 다음, 억압적 성격 성향자의 부적응적 특성을 탐색하기 위해, 신체화에 대하여 억압집단과 비억압 집단간 차이가 있는지 SPSS 11.0 for Window를 이용하여 독립표본 t검증(Independent Sample Test)을 실시하고 억압 집단과 비억압 각각에서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감정이 신체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순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억압 집단과 비억압 집단들을 구분하기 위해 불안을 측정하는 외현 불안 척도(MAS)와 방어성을 측정하는 사회적 선회도 척도(MCSDS)의 평균점 분할을 기점으로 질문지 응답자 227명을 두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외현 불안 척도(MAS), 사회적 선회도 척도(MCSDS)의 평균점은 각각 8.56점과 14.23점 이었다. 따라서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현 불안 점수가 평균점(8.56) 이하이고 사회적 선회도 점수가 평균치(14.23)보다 높은 사람을 억압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세 집단을 각각의 평균점에 따라 분류한 후 -외현 불안 점수도 평균점(8.56)보다 높고 사회적 선회도 점수도 평균점(14.23)보다 높은 사람은 방어적 고불안 집단으로, 외현 불안 점수가 평균점(8.56) 이하고 사회적 선회도 점수도 평균치(14.23) 이하인 사람은 저불안 집단으로, 외현 불안 점수가 평균점(8.56)보다 높고 사회적 선회도 점수가 평균점(14.23) 이하인 사람은 고불안 집단으로- 하나로 묶어서 비억압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표 1. 불안-방어성에 따른 집단 분류 (인원수 및 평균점수)

	인원수 (백분율)	남 : 여	불안 점수	방어성 점수
억압	71(31.28%)	36 : 35	4.59(2.39)	19.00(2.97)
비억압	156(68.72%)	83 : 71	10.36(4.43)	12.06(3.96)

표 2.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불안	방어성	자존감	낙천성	강인성	통제감	외향성	양가성	신체화
불안	1.000								
방어성	-.402**	1.000							
자존감	-.583**	.409**	1.000						
낙천성	-.456**	.241**	.502**	1.000					
강인성	-.339**	.311**	.329**	.391**	1.000				
통제감	-.351**	.353**	.406**	.365**	.373**	1.000			
외향성	-.350**	.197**	.427**	.209**	.206**	.164*	1.000		
양가성	.294**	-.162*	-.207**	-.196**	-.077	-.152*	-.115	1.000	
신체화	.305**	-.200**	-.207**	-.182**	-.126	-.162*	-.077	.201**	1.000

* $p < .05$, ** $p < .001$

불안, 방어성, 자존감, 낙천성, 강인성, 내적통제감(통제성으로 표기), 외향성, 양가감정(양가성으로 표기), 신체화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불안척도의 경우, 방어성 척도와 유의미한 부적상관($p < .001$)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불안한 사람은 적응적인 성격 특성 모두에서 부적관계를 나타내고 있고 ($p < .001$), 양가성, 신체화에서는 정적 상관을 보여주고 있다($p < .001$). 방어성 척도의 경우에는 적응적인 성격 특성 모두와 정적상관을 보이고 있고 ($p < .001$), 부정적인 특성과는 부적상관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방어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적응적인 성격 특성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자존감의 경우, 적응적인 성격 특성과 비교적 높은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고($p < .001$), 양가감정과 신체화는 부적 상관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낙천적이고, 강인하고, 내적통제력이 강하고 외향적인 성격일 수 있으며, 정서표현의 양가감정은 덜 느끼고 신체화도 덜 나타나는 사람임을 예측할 수 있다. 낙천성도 자존감과

마찬가지로 적응적인 성격 특성과는 정적인 상관을 보여주고 ($p < .001$), 양가감정과 신체화는 부적 상관을 보여주고 있다. 강인성의 경우, 내적 통제감과 외향성과 정적 상관을 나타내고($p < .001$), 양가감정과 신체화는 어떤 상관관계도 나타내지 않았다. 통제감의 경우, 외향성과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고 ($p < .01$), 양가감정과 신체화는 부적 상관을 나타내고 있다 ($p < .01$). 마지막으로 정서표현의 양가감정과 신체화는 약하지만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주고 있으므로($p < .001$) 가설 2에서 단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성별에 따른 불안, 방어성, 자존감, 낙천성, 강인성, 내적통제감, 외향성, 양가감정, 신체화의 차이를 탐색해 본 결과 오직 신체화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t=-2.611, p<.01$)

먼저, 가설 1의 다섯가지 변인들에서 억압 집단과 비억압 집단간 차이를 나타내는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Independent Sample Test)을 실시한 결과, 다섯가지 변인 모두에서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에 의하면, 자존감($t=6.58, p<.001$), 낙천성($t=3.86, p<.001$), 강인성($t=4.78, p<.001$), 내적통제감($t=5.85, p<.001$), 외향성($t=2.73, p<.001$)에서 억압 집단이 비억압 집단보다 통계적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표 3. 자존감, 낙천성, 강인성, 내적통제감 외향성의 평균과 분산분석결과

	억압 집단	비억압 집단	t
자존감	39.69(4.75)	34.80(5.37)	6.582***
낙천성	23.28(3.52)	21.46(3.19)	3.858***
강인성	37.11(4.24)	34.28(4.08)	4.784***
내적통제감	25.56(2.43)	23.35(2.70)	5.852***
외향성	13.73(4.31)	11.09(4.85)	2.731***

*** $p < .001$ 괄호안은 표준편차

그 다음, 가설 2에서 억압 성격의 비적응적인 측면과 관련하여, 신체화에서 억압 집단과 비억압 집단 간 차이를 나타내는지 알아보았다.

표 4.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감정 신체화의 평균과 분산분석결과

	억압	비억압	t
신체화	7.73(5.58)	10.70(6.05)	-3.505***

*** $p < .001$ 괄호안은 표준편차

첫째로, 부정적 정서를 신체적 증상으로 대처하고 경감시키려는 신체화에 있어서 억압 집

단과 비억압 집단 간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집단간 차이는 유의미하였으나($t=-3.51, p<.001$) 연구자의 예상과는 달리 억압 집단이 더 낮은 신체화를 보고하였다. 둘째로, 억압 집단과 비억압 집단을 나누어 각각의 집단에서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감정이 신체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표 2에서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감정과 신체화의 상관분석 결과, 양가감정과 신체화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r=.201, p<.01$) 따라서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집단을 나누지 않은 전체에서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감정이 신체화에 미치는 영향 또한 유의미하게 나타났고($F=9.593, p<.01$) 그 설명량은 약 4%였다.

표 5. 전체 집단에서 양가감정이 신체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단순회귀분석

종속변인	독립변인	Beta	R ² (adj-R ²)	F
신체화	양가감정	.201	.041(.036)	9.593**

** $p < .01$

표 6은 억압 집단에서 정서표현의 양가감정이 신체화에 얼마나 많은 설명력을 나타내는지 보여주는 결과표이다. 단순 회귀분석 결과, 연구자의 가설대로 억압집단에서 정서표현의 양가감정이 신체화를 설명하는 예측력이 크지는 않았지만 유의미하였으며($F=3.929, p<.01$), 그 설명량은 약 5.6%였다. 비억압 집단에서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감정이 신체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연구자의 가설대로 정서의 표현과 억압 사이의 갈등은 신체화를 통계적으로 설명하지 못했다.

표 6. 억압 집단에서 양가감정이 신체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단순회귀분석

종속변인	독립변인	Beta	R ² (adj-R ²)	F
신체화	양가감정	.242	.056(.041)	3.929**

** $p<.01$

논 의

우선 본 연구의 가설 1에서는 억압 성격 성향자가 많이 사용하는 능동적 정서조절방략이 삶의 주관적 만족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근거로, 능동적 정서방략과 정적 상관을 나타내는 자존감, 낙천성, 강인성, 내적통제감, 외향성의 다섯가지 개인차 성격변인에 있어서 억압 집단이 비억압 집단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지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연구자의 가설대로 다섯가지 변인들에서 억압 집단이 비억압 집단보다 전반적으로 더 높은 점수를 나

타내었다.

첫째로 자존감에 있어서 이러한 결과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정서에 대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를 한다는 연구결과(Carver, Scheier, & Weintaub, 1989)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둘째로 낙천성과 관련하여 기존연구에 의하면 억압 집단은 부정적 정서의 개선에 대한 믿음이 비억압 집단보다 더 크고(옥수정, 2001) 또한 부정적 정서경험과 표현경향성도 낮으며 긍정적 정서를 더 잘 느끼므로(권재영, 한성열, 1992; Eloff & Krohne, 1996) 낙천적인 성격 특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강인성이 스트레스의 바람직하지 못한 효과를 감소시킨다는 연구가 있듯이 부정적 정서경험에 취약한 억압 집단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더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통제하려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 넷째로, 내적통제감에 있어서 억압적 성격 성향자들은 외부 환경 통제소재보다 자기내적 통제소재를 더 많이 보였는데, 이는 억압적 성격 성향자가 어떤 상황과 행동에 더 높은 책임감과 통제감을 갖는다는 것을 암시한다. 마지막으로 외향성에 있어서 억압 집단이 비억압 집단에 비해 더 높은 외향성을 나타낼 것이라는 가설도 지지되었다. 내향적인 사람들의 특성에 대한 연구를 보면 내향적인 사람들은 스트레스에 대하여 반추적인 대처양식을 보인다는 연구결과가 있다(Rogers & Najarian, 1998). 옥수정(2001) 연구에서는 억압 집단이 정서표현에 있어서 친밀감을 더 많이 표현한다는 결과를 얻었는데 이는 친사회적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억압 집단은 부정적인 스트레스를 자기 내적으로 반추하기 보다는 외적 상호작용을 더 고려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위의 결과를 요약하면, 억압 집단은 자신에 대해 가치있게 생각하고 대체로 만족감을 느끼며, 미래에 대해 긍정적인 바람직한 기대를 가지고 직면하는 사태에 능동적으로 반응함을 시사한다. 또한 외부 상황에 대한 내성이 크고 삶의 목적의식을 가지며, 스스로의 상황과 행동에 대해 책임감과 통제감을 가지며,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상호작용을 더 잘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인들은 삶, 건강, 대인관계의 주관적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능동적 정서조절 방략과 정적인 상관을 나타냈으므로 개인의 적응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임을 시사한다.

그 다음 억압적 성격의 부적응적인 측면을 탐색해보기 위하여, 가설 2에서는 우선 정서를 표현하지 않고 억누르는 것, 특히 부정적 정서를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신체적 불편감과 연관된다는 기존연구에 근거하여, 신체화 질문지를 사용하여 억압 집단이 비억압 집단에 비해 더 많은 신체 증상을 호소하는지 알아보았다. 아울러 분석방법을 달리하여 억압 집단과 비억압 집단 각각에서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감정이 신체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증하였다.

첫째로, 억압 집단과 비억압 집단간 신체화를 비교해 본 결과, 억압 집단이 비억압 집단보다 더 높은 신체화를 나타낼 것이라는 가설은 지지되지 못했다. 억압적 성격 성향자는 생리적 각성이 높고 신체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체 증상을 많이 나타낼 것이라 가정하였으나, 반대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억압적 성격 성향자가 스트레스 대처자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건강척도체크에서는 낮은 점수를 받는다는

연구결과(Myers & Vetere, 1996)와도 상반되는 결과이다. 또한 최근 신체화와 관련된 변인들에 대한 이소연(2001)의 연구에서 신체화 경향성이 높은 개인은 불쾌한 자극이 뚜렷한 상황에서는 부정적 정서화 반응을 억압하여서, 모호하고 전반적인 신체적 불평으로 이를 보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 연구 결과와도 상반된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정상적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장면에서 질문지 검사를 통해 신체화 경향의 정도를 알아보았으므로 한계가 있었으리라 예상된다. 또한 가설이 기각된 이유를 신체화의 증상을 나타내는 양상에서 나타나는 차이, 즉 신체화 정도에 대한 개념의 모호성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신체화의 양상은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초기 신체화인 사람은 자신의 신체 증상의 원인에 대해 질문을 받으면 쉽게 심리적인 문제나 대인관계에서의 스트레스 때문에 몸이 불편해진 것 같다고 말한다. 그리고 임의적 신체화인 사람도 자신의 신체증상에서 심리적인 원인을 전혀 생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경쓰거나 걱정이 많아서 몸에 문제가 생긴 거 같냐는 질문을 받으면 심리적 원인을 찾아내고 이를 인정한다(이소연 재인용, 2001). 그러나 진짜 신체화인 사람은 어떠한 심리적 설명도 거부하며 의사가 신체적 문제가 없다고 설명해도 믿지 않는다고 한다. 병원을 찾는 사람 중 몸에 실제 이상이 없는 경우, 약 41%는 초기 신체화이며, 임의적 신체화는 23%, 진짜 심각한 신체화는 12%로 추정되고 있다(Goldberg, Gask, & O'Dowd, 1989). 즉, 진짜 심각한 신체화는 자신의 신체화에 대한 지각이나 통찰이 결여되고 이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기존 연구와 반대되는 본 연구결과는 이와 같은 가능성에서 비롯되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대개 오랫동안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를 통제하고 억압해 온 사람들은 심하면 신체를 자기로부터 완전히 분리시키기도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직면하기 싫은 감정이나 욕구를 더욱 철저하게 외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성적 신체화 장애 환자들이 대개 이런 경향을 많이 보이는데, 이들은 신체를 자신으로부터 소외시켜 버린다(Kellner, 1990). 극단적인 경우, 지속적인 구타나 모욕적인 벌을 체험한 사람에게서도 이러한 신체 소외 현상을 관찰할 수 있는데 가장 극단적인 예로는 성폭력 피해자들을 들 수 있다. 이들은 해결되지 않은 분노감과 죄책감, 불안감, 수치심 등을 억압함으로써 고통을 해결하려 하는데, 이러한 억압을 좀 더 완전하게 하기 위해 신체를 자기로부터 분리시킨다고 한다(Briere, 1988). 따라서 이러한 결과들을 참고하여, 신체화 증상을 동반하면서 억압하게 되는 정서적 원인들에 대한 좀 더 단계적이고 세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아울러 억압 집단과 비억압 집단 각각에서 신체화에 대한 양가감정의 설명력을 단순 회귀 분석한 결과, 억압 집단에서는 비억압 집단과 달리 신체화에 대한 정서표현의 억제와 표현 사이의 갈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예측력을 가졌다. 그러나 예측력이 5.6%로 크지 않은 설명력을 보였다. 이러한 낮은 설명력은 양가감정과 신체화의 공변량이 낮게 나타난 것($r = .201, p < .001$)과 일치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통계량이 미비하기는 하나, 이러한 결과가 새롭게 시사하는 것은 억압적 성격 성향자가 신체적 불편감을 호소할 때, 그 원인이 이미 선행 연구에 의해 밝혀졌듯이 정서를 표현하지 못하고 억누르는 것 외에, 정서표현의 여부를 떠나서 정서를 표현하느냐 억압하느냐 사이의 양면적인 내적 갈등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이전의 연구들이 억압적 성격의 정서적 측면에 초점을 두었던 것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자존감, 낙천성, 강인성, 내적통제감, 외향성 등 개인의 전반적 성격특성을 다룸으로써 억압적 성격 성향자들의 적응적인 성격특성에 대한 좀더 기본적인이고 포괄적인 이해에 접근하게 되었다. 또한 억압집단의 신체화를 설명하는 요인으로써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적인 갈등이 다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가지고 있는 제한점과 앞으로의 연구방향에 대한 몇 가지 제안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억압적 성격 성향자의 특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기존의 연구 결과와 비교 분석하기 위해 Weinberger 등(1979)의 분류개념을 근거하였는데, 불안 척도와 방어성 척도와 관계 자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본 연구의 상관분석 결과, 불안과 방어성은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Freud 이후 오랜 통념상 내적갈등 및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 방어를 사용한다고 알려져 오기는 하였으나, 불안이 낮아서 방어성이 높아지는 것인지, 방어성이 높아서 불안이 낮아지는 것인지에 대한 경험적이고 실제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과 본 연구에서 가정하였듯이 억압적 성격 성향자가 비교적 안정적인 성격변인으로 간주된다면, 억압성향 자체가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는지에 대한 추후 연구가 요구된다. 애착유형에 따라서 방어기제에 차이를 보였다는 기존 연구(김은미, 2001)로부터, 억압 성격 성향자의 형성요인을 영아기 애착 등 발달적 측면에서 예측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억압 집단이 나타내는 비적응적인 측면에 대한 특성을 탐색하기 위하여 억압 집단이 신체화를 더 많이 나타낼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소수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신체화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자기보고형 질문지는 억압 집단의 부적응적인 측면을 드러내기에는 한계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 이유는 억압 집단의 사람들이 신체화에 대해서 스스로 느끼는 신체적인 불편감에 대한 통찰이 부족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검사가 실시된 맥락에서 볼 때, 신체화 경향(혹은 건강염려증적 경향)이 높은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러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을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수업장면에서 자기보고식 지필검사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무리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후의 연구에서는 자기보고식 지필검사가 아닌, 응답자의 주관적인 판단 이외의 타인의 판단(예 : 친구 평정)이나 얼굴표정 측정 같은 객관적인 방법을 사용하거나, 스트레스 수준에 따른 신체화에 억압 집단과 비억압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 맥락을 다르게 하여 세부적으로 실험한다면 더 정확한 결론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억압 성격 성향자들이 개인의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차 변인들의 특성을 나타낼 것이라는 가정하에 적응적인 성격 특성을 지니는 동시에, 신체적 측면에서 억압 집단의 비적응적인 특성을 가정하였다. 이것은 억압 성격 성향자들이 모든 측면에서 적응적이면서 동시에 부적응적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세부적으로 어떤 상황 혹은 측면에서 억압 성격 성향자들이 적응적이며 비적응적인지에 대한 보다 폭넓은 주제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방어기제 중 비적응적/적응적 방어유

형과 억압 성격의 방어성간에 어떠한 관련을 보이며, 억압 집단이 비적응적/적응적 방어유형에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연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 결과 각 변인들간의 관계가 모호한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방어성과 적정 상관을 보이고 있는 자존감의 경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어서 억압적인 성격을 가진 것인지, 억압적인 성격이어서 자존감이 높은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간과되었다. 억압 집단은 가설과는 달리 신체화에서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는데, 이러한 결과가 억압 집단과 정적 상관을 보인 다른 적응적인 성격 특성들과 어떠한 상호작용의 영향 때문은 아닌지, 순수한 억압 집단의 영향 때문인지 보다 세심하고 정확한 연구가 요구된다.

끝으로, 억압적 성격 성향자들이 타인의 정서에 대해 어떤 특성을 나타낼지 연구해 보는 것도 상당히 흥미로울 것으로 생각된다.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감정을 느끼지 않는 억압 집단은 타인이 느끼는 심리적 고통이나 부정정서를 얼마나 변별하고 또 그것을 얼마나 공감하는가, 그리고 그것이 억압 집단이 타인으로부터 정서적, 사회적 지지를 더 적게 받게 하지는 않는지 등의 질문을 가지고 억압적 성격의 비적응적인 측면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연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권재영, 한성열(1992). 억압과 정서와의 관계 연구. 한국심리학회 92연차대회 학술발표논문집, 495-503
- 김은미 (2001). 성인애착과 자아방어기제간의 관계 연구. 이화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옥수정 (2001). 억압적 성격 성향자의 정서적 특성과 정서 조절 방략.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석빈(1999). 경험하는 정서의 종류와 선행사건에 따른 정서조절 양식의 차이.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소연 (2001). 정서인식, 스트레스 지각, 통증민감도가 신체화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승미 (2003). 정서인식불능, 정서표현갈등, 정서표현성이 중년여성의 심리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용승(2000). 강박사고 역제의 역설적 효과.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주일, 황석현, 한정원, 민경환(1997). 정서의 체험 및 표현성이 건강과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와 성격, 11(1) 117-140
- 정지영(2002). 스트레스 수준에 따른 억압적 성격 성향자의 정서 인식 능력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조성호(1999). 한국판 방어유형질문지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1(2) 115-137.

- 하정 (1997). 정서표현 성향과 스트레스 평가 및 대처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한정원(1997). 정서 표현성이 건강 및 주관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Bendig, A, W. (1956). The development of a short form of the manifest anxiety scale.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0, 384-391.
- Beutler, L. E., Engle, D., Oro-Beutler, M. E., Daldrup, R, & Meredith, K. (1986). Inability to repress intense affect: A common link between depression and pai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4, 752-759.
- Briere, J. (1988). symptomatology in men who were molested as children.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58(3), 457-461.
- Byrne, D. (1961). The repression-sensitization scale: rational, reliability and validity, *Journal of personality*, 29, 334-349.
- Byrne, D., Barry, J., & Nelson, D. (1963). Relation of revised Repression-Sensitization Scale to measures of self-description. *Psychological Report*, 13, 323-334.
- Carver, C. S., Scheier, M. F., & Weintaub, J. F. (1989). Assessing Coping Strategies: A theoretically based approach.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s*, 175, 526-536.
- Crowne, D. P., & Marlowe, D. A. (1964). *The approval motive: Studies in evaluative defence*. New York: Wiley.
- Dollard, J., & Miller, N. (1950). *Personality and psychotherapy*. New York: McGeaw-Hill.
- Erdelyi, M. H. (1985). *Psychoanalysis: Freud's cognitive psychology*. New York: Freeman.
- Eloff, B., & Krohne, H. W. (1996). Repressive emotional discreteness after fail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1318-1326.
- Eysenck, H. J. (1977). Personality and factor analysis: A reply to Guilford. *Psychological Bulletin*, 84, 405-411.
- Freud, S. (1957). Repression. In J. Strachey(Ed.), *The standard edition of the complete psychological works of Sigmund Freud* (Vol. 14, pp. 146-158). London: Hogarth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915).
- Goldberg, D., Gask, L., & O'Dowd, T. (1989). The treatment of somatization: teaching techniques of attribution.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33, 689-695.
- Gross, J. J., & Levenson, R. W. (1997). Hiding feeling: The acute effects of inhibiting negative and positive emot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6(1), 95-103.

- Holroyd, K. (1972). Repression-sensitization, Marlowe-Crowne defensiveness, and perceptual defence. *Proceedings of the 80th Annual Convention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7, 401-401. (Summary)
- Houston, B. K. (1971). Anxiety, defensiveness and differential prediction of performance in stress and nonstress condi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7, 66-68.
- Holmes, D. S. (1974). Investigation of repression: Differential recall of material experimentally or naturally associated with ego threat. *Psychological Bulletin*, 81, 632-653.
- Janner, L. D., & Schwartz, G. E. (1986). Self-deception predicts Self-report and endurance of pain. *Psychosomatic Medicine*, 48(3/4), 211-223.
- Kahn, M., & Schill, T. (1971). Anxiety report in defensive and nondefensive repressor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36, 300-305.
- Kaplan, H. I., & Sadock, B. J. (1989). Comprehensive textbook of psychiatry, 5th ed. *General Hospital Psychiatry*, 13, 71-73.
- Kellner, R. (1990). Somatization : Theories and research. *Th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Illness*, 178, 150-160.
- King, L. A., & Emmons, R. A. (1990). Conflict Over Emotional Expression: Psychological and Physical Correlat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5), 864-877.
- Myers, L. B., & Brewin, P. J. (1995). Effects of sex, guilt, repression, sexual "arousability" and sexual experience on female sexual arousal during erotica and fantas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9, 177-187.
- Myers, L. B., & Vetere, A. (1996). Repressors responses to health-related questionnaires. *British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 245-257.
- Naranjo, C. (1978). Gestalt approach as a transpersonal approach. *The Gestalt Journal*, vol 1(2), 75-81
- Newton, T. L., & Contrada, R. J. (1992). The colour naming of socially threatening word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0, 801-803.
- Pennebaker, J. W., Hughes, C. F., & O'Heeron, R. C. (1987). The Psychophysiology of Confession: Linking Inhibitory and Psychisomatic Process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4), 781-793.
- Pennebaker, J. W., Kiecolt-Glaser, J., and Glaser, R. (1988). Disclosure of Traumas and Immune Function : Health Implications for Psychotherap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 239-245.

- Perls, F. S. (1969). *Gestalt Therapy Verbatim*. Moab, UT : Real People Press
- Perls, F. S. (1976). *The Gestalt Approach & Eyewitness to Therapy*. New York : Bantam Books.
- Rief, W., & Hiller, W. (1999). Toward empirically based criteria for the classification of somatic disorders.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46*, 507-518.
- Rogers, D., & Najarian, B. (1998).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rumination and cortisol secretion under stress. *Personal and Individual Differences*, *24*, 531-538.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tter, J. B. (1990). Internal Versus External Control of Reinforcement. *American Psychologist*, *45*, 489-493.
- Scheier, M. F., & Carver, C. S., & Weintraub, J. F. (1989). Assessing Coping Strategies: A theoretically based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 267-283.
- Taylor, G. J. (1984). Alexithymia: Concept, Measurement and implications for treatment,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1*, 725-732.
- Taylor, G. J., Barby, R. M., Parker, J. D. (1991). The Alexithymia construct- A potential paradigm for psychosomatic medicine. *Psychosomatics*, *32*, 153-164.
- Tudor, T., & Holmes, D. (1973). Differential recall of successes and failures: Its relationship to defensiveness, achievement motivation, and anxiety. *Journal of Experiment Research in Personality*, *7*, 208-224.
- Weinberger, D. A., Schwartz, G. E., & Davidson, R. J. (1979). Low-anxious, high-anxious and repressive coping styles: psychometric patterns and behavioral responses to stres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88*, 369-380.

A Comparative Study on the Adaptive/ Maladaptive Characteristics of Repressors

Yoon-A Lee

Ki-Hak Lee

Yo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adaptive/ maladaptive characteristics of repressors who exhibit heightened physiological reactivity to unpleasant stimulus but report low level of negative emotion. This study followed Weinberger, Schwartz and Davidson's(1979) definition of repressors as people with high scores on defensiveness measure (Marlowe-Crowne Social Desirability Scale) and low scores on anxiety measure(Manifest Anxiety Scale). In hypothesis 1, in order to investigate the adaptive characteristics of repressors, Independent Sample Test was performed to examine that repressors have high scores than nonrepressors on individual characteristics variables (i.e., self-esteem, life orientation, strength, locus of control, extravert), which have a positive correlation with active coping, one of the emotional regulation strategies. As a result, the differences between repressors and nonrepressors are significant in five individual's functional variables and showed repressors have high scores than nonrepressors. In hypothesis 2, in order to investigate the maladaptive characteristics of repressors, Independent Sample Test was performed to examine that the low levels of repressors's somatization. In addition, in each groups simple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examine that the somatization influenced by the repression of emotion shows the difference between repressors and nonrepressors. As a result, the differences between repressors and nonrepressors are significant in the dysfunctional variable but, as opposed to the hypothesis, it showed nonrepressors have high scores than repressors. However,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has a positive coefficient significantly with the somatization in repressors, but not in nonrepressors. Finally, for adaptive characteristics, repressors cherish and satisfy themselves, expect their future affirmatively and cope actively with the life. To the contrary, for the maladaptive characteristics of repressors, the cause of somatization may result from the repression of natural emotions or the ambivalent conflict of emotional restraint and expression.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and the suggestion for future research were proposed.

Key Words : repressors, nonrepressors, adaptive/maladaptive characteristics